

『2014 서울사회적경제아이디어대회』
최종결과보고서

■ 실행팀명 : 훗날리다 대표자 김민지 (김민지)

작성자 김민지 (김민지)

■ 확인자 : 센터직원 (인)

■ 예산

- 실행지원금 예산 2,680,000 원

- 실행지원금 집행 2,680,000 원

1. 실행팀 현황

실행팀명	흘날리다	대표자명	김민지
실행 기간	2014년 11월 00일 - 2015년 1월 31일		
실행 지원금	2,680,000원		
실행목적 및 배경	시각장애인의 조향사 전문직 진출 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실행과제 및 목표, 추진계획 요약	<p>흘날리다의 가장 큰 핵심은 "시각장애인과 의 낭만공유"이며, 사회적 미션은 시각장애인 조향사 전문직 진출의 시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p> <p>조향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사이의 이해가 낭만 공유로 이어질 수 있는 향기를 만들어 그들만의 감성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를 향기에 담으려합니다.</p>		

2. 추진실적 총괄 ※ 아래 표를 참고하되 자유롭게 작성

구분	계획	최종 실적	성과달성율
활동명	흘날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활동가 선정 및 에세이 작성 - 향기 제품 제작(키트 구성) - 코르크마개 목걸이 업사이클링 공모전 수상(원주지방환경청) - HEUTNAL 조향 커리큘럼 완성 - 현대자동차 기프트카세어링 선정 - HEUTNAL 향기전시회 - 팝업마켓 입점 - 흘날리다 책자 완성 - 시각장애인들과 관련 모임 개최(활동가 외) - 네이버 공익/나눔 메인에 블로그 게재 	300%
실행기간	2014.11.20-2015.01.09	2014.11.20-2015.1.31	100%
참여자 수	6	7	117%
세부성과목표	시각장애인 개별 스토리 향수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활동가 3인 에세이 완성 - 시각장애인 3인 향수 선정 및 제작 	100%

	캔들 제작	- 캔들 제작 크기별 120개 이상	1000% 이상
	키트 구성 제작	- 키트 디자인 및 구성품 제작 완료(10세트)	200%
협력기관(기관명) 수	- 시각장애인 단체(2) - 상품 제작업체 (1) 계획 총 3곳	- 동네공방 - 캔들트리 - 청년허브 -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한국시각장애인 대학생연합회 현재 총 5곳	160%

3. 실행내용 및 세부추진실적

연번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인원/규모	활동내용 및 실적
1	기획 회의	11월 23일/ 신촌 스타 디류 헬로 커뮤니티	4명/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전체 활동 일정 공유. - ‘시각장애인의 자기존중감’ 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상승. - 시각장애인 이해 방법과 다가가는 방법 등을 정리. -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송부용 소개서 작성. - 훌날리다 SNS 관리 시작 - 훌날리다 마케팅 및 홍보 고안
	자체평가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전 전체적인 활동의 아웃라인을 그려볼 수 있었음. 시각장애인 대한 이해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2	시각장애인 활동가 미팅	11월 30 일/광화문	3명/팀원, 활동가회의(외부섭외 활동)	- 훌날리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
	자체평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시각장애인을 만나며 그들을 이해하고, 또 ‘훌날리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서로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3	전체 회의	11월 29일/ 청년허브 창문카페	4명/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 활동가들의 업무 분담. - 프로젝트 블로그를 개설하고 포스팅 시작. - 향기 관련 제품 컨셉자료 정리. - 시각장애인, 조향사 관련 자료와 상품화 관련 컨셉 사진 수집. - 훔날리다 블로그 배너 디자인.
	자체평가	향기 관련 제품 준비를 위해 시장조사를 하였음. 공병이나 케이스는 대량 구매가 아닐 경우 가격이 비싸고 모양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힘.		
4	시각장애인 활동가 미팅	11월 30일/ 신림역 근 처 카페	3명/팀원, 활동 가 회의(외부섭 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훔날리다 프로젝트를 소개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 논의. - 프로젝트 활동 일정 공유.
	자체평가	비장애인 활동가 모두 시각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도 있었지만, 크게 다를 것 없이 작은 부분들만 도와주면 이동하는 것이나 밥 먹는 것 등 일상적인 일들도 무리 없이 소화할 것으로 보임.		
5	시각장애인 활동가 미팅 및 외부 회의	12월 1일	10명/팀원, 활동 가 전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활동가에게 훔날리다의 사업취지 및 활동 가능 여부 논의
	자체평가	시각장애인 활동가의 현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들을 수 있었고 훔날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느낌 파악, 호의적인 평가		
6	위키서울 멘토링 OT	12월 3일	3명/팀원, 활동가 외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활동가와 함께 첫 멘토링 참여.
	자체평가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대중으로부터 후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음		
7	기획회의	12월 4일	3명/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활동가 최종 라인업 선정.
	자체평가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활동가 최종 라인업 및 역할분담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 성립		
8	기획회의	12월 5일	1명/팀원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훔날리다 관련 포스터 사진 촬영.
	자체평가	훔날리다 광고를 위한 포스터 사진 촬영을 함.		

9	기획 회의	12월 6일/ 신촌역 근 처 카페	3명/팀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 일정 공유. - 구체적인 활동 방향 설립.
	자체평가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상의하고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10	기획회의	12월 7일/ 이대 에프 가든	2명/팀원, 활동가 외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활동가 향수공방체험
	자체평가	시각장애인의 예민한 후각에 대한 타당성 근거로 다양한 향을 맡아보며 분석할 수 있도록 향수공방체험.		
11	기획회의	12월 8일	3명/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에세이 작업 시작
	자체평가	시각장애인들과 1:1 파트너를 형성하여 훔날리다의 방향성 및 에세이의 방향에 관련된 회의 및 전달.		
12	활동가 전체 모임	12월 12 일/ 신촌역 근 처 카페	9명/팀원, 활동 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 활동가 4명, 시각장애 인 활동가 3명으로 멤버 확정.
	자체평가	활동가를 확정 지으며 ‘훔날리다’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가 달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의 뜻으로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 계획함.		
13	기획회의	12월 17 일	3명/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키트 제작 디자인 협의.
	자체평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될 향수키트의 디자인 방향성 실용성과 훔날리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임팩트있는 디자인으로 제작 방향 설정.		
14	기획회의	12월 20 일	2명/팀원 외부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샘플링 제작을 위한 조사.
	자체평가	향수, 캔들관련 시장이 형성 된 방산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구입하여 샘플링 작업을 시작 함.		
15	스토리 퍼퓸 과정 실행	1월 3일/ 일산 캔들 트리	5명/팀원, 활동 가 외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 퍼퓸 과정 실행을 위한 첫 단계로 향수를 이해하기. - 향수 공방을 방문하여 각자에 어 울리는 향기 찾기. - 훔날리다 에세이 관련 회의.
	자체평가	에세이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었음.		

16	기획회의	1월 3일/ 일산	3명/팀원회의	- 훔날리다 홍보를 위한 회의.
	자체평가	블로그 운영 및 외부적인 홍보의 방법으로 현대자동차 카셰어링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지 회의 함.		
17	기획 회의	1월 5일/ 청년허브 창문카페	3명/팀원회의	- 프로젝트 팀 빌딩 및 자료전달. -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작성 및 역할분담.
	자체평가	프로젝트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의 실행 위치를 파악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마칠 수 있었음.		
18	기획회의	1월 5일/ 합정 자음 과 모임카 페	2명/팀원, 외부 협력회의	- 훔날리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판매 개척을 위한 편집샵 입점성명회.
	자체평가	프로젝트의 발전방향성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판매를 위한 편집샵 입점설명회 및 신청을 하며 프로젝트의 미래계획을 수립.		
19	기획회의	1월 7일/ 남대문	2명/팀원, 외부 협력회의	- 훔날리다 향수 키트 제작을 위한 제작협의.
	자체평가	향수 키트 제작을 위한 세부사항 및 상품자체에 실용성을 더하기 위한 제작 협의		
20	기획회의	1월 7일/ 현대미술 관	2명/팀원 외부활 동	- 훔날리다 스토리엽서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자체평가	훔날리다의 엽서 제작을 위한 디자인 협의. 프로젝트의 의미전달을 한 장의 엽서로 제작하기 위한 회의.		
21	기획회의	1월 7일/ 개인작업 실	2명/팀원 내부 활동	- 훔날리다 대표향수 선별을 위한 샘플링 작업.
	자체평가	향수 샘플링 작업을 통하여 시중 판매되는 일반 제품과의 비교 등을 통한 상품성 확보를 위한 회의.		
22	기획회의	1월 8일/ 청년허브	4명/팀원, 활동 가 회의	- 훔날리다 대표향수 선정 및 각자의 에세이 작성.
	자체평가	프로젝트의 중간시점에서 대표향수, 엽서 에세이, 엽서디자인 등에 대한 회의를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선정함.		

23	기획회의	1월 11일 /청년허브	2명/팀원, 활동 가 내부 활동	- 훔날리다 대표향수 선정 및 각자의 에세이 작성.
	자체평가	프로젝트의 중간시점에서 대표향수, 엽서 에세이, 엽서디자인 등에 대한 회의를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선정함.		
24	기획회의	1월 14일/ 옥인동	3명/팀원, 활동 가 회의	- 훔날리다 제작 공간 관련 문제 회의
	자체평가	캔들과 향수는 향이 오픈 공간에서 하게 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 공간 대여 결정.		
25	기획회의	1월 15일/ 자음과 모 음	7명/팀원, 활동 가 회의	- 자음과 모음 카페 입점 관련 회의
	자체평가	자음과 모음 카페 입점 시 상주 인원에 대한 회의가 조금 더 필요함.		
26	기획회의	1월 17일/ 주문진	8명/팀원, 활동 가 회의	- 현대 기프트카 웨어링
	자체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다 등 감성 공유 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추진 보류 하였으나 기프트카 웨어링으로 다녀올 수 있었음.		
27	외부활동	1월 23일/ 자음과 모 음 카페	6명/팀원, 활동 가 외부 활동	- 자음과 모음 아트 폴리마켓 참가
	자체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셀러 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음.		
28	제품제작	1월 25일/ 청년허브	4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시각장애인 스스로 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음.		
29	제품제작	1월 27일/ 청년허브	3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몇 번의 정확한 훈련이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30	제품제작	1월 27일/ 청년허브	3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몇 번의 정확한 훈련이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31	제품제작	1월 28일/ 청년허브	6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향기전시회를 앞두고 전체적인 결과물 정리 및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느낌.		
32	제품제작	1월 29일/ 청년허브	6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향기전시회 전 날 마무리 작업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전체적인 컨셉 고민.		
33	제품제작	1월 30일/ 청년허브	5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향기전시회를 개최하며 많은 분들이 관심 갖어주시고 프로젝트에 응원해주셔서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음.		
34	제품제작	1월 31일/ 청년허브	3명/팀원, 활동 가 제품 제작	- 품평회 전시 제품 제작
	자체평가	2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분들이 참여해주시고 프로젝트를 비롯해 커뮤니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음. 홀날리다의 방향성에 응원을 해주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았음.		

4.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 인쇄물, 포스터 등의 성과물은 3부를 제출할 것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책자	“흘날리다” 과정 및 결과 관련 책자	10	
2	엽서	흘날리다 시각장애인 활동가 3인의 에세이 엽서 및 흘날리다 소개 엽서	총 4종 (50장씩)	
3	캔들	시각장애인 활동가가 직접 제작한 3개(4개/1인) 및 흘날리다 대표 캔들 1종 총 13종 캔들	총 13종	향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캔들이 향수의 향기를 support함
4	향수	시각장애인 활동가가 직접 제작한 향수 3개(1개/1인)	총 3종	
5	액자	시각장애인 활동가의 에세이 및 흘날리다 에세이 작성 및 점자 제작	총 4종	
6	향수키트	시각장애인들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나무 상자, 내지, 촉감이 느껴지는 보자기 등의 구성품	총 5개	
7	스티커	흘날리다를 나타낼 수 있는 자체디자인 스티커	총 4종	
8	명함	시향지 역할을 하는 흘날리다 명함	총 1종 (50장)	
9	리본	흘날리다 리본	총 2종	
10	코르크마개 목걸이	향수를 뿌린 후 향기를 머금고 있도록 만든 코르크마개 업사이클링 목걸이	총 2종 (4개)	
11	미니어처 캔들	상품 홍보를 위한 미니어처 캔들	총 5종	
12	동영상	시각장애인 제작과정을 담은 동영상	총 2종	

5. 실행팀 실행 운영방식

실행팀 운영방식을 취합하여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실행팀의 활동 및 만나서 실행한 방식, 활용 콘텐츠 및 프로세스 등을 적어주세요.

- 팀원 간 주요 소통채널, 자료 공유방식, 의사결정 방식, 대외 홍보 전략 등

※ 훔날리다팀은 시각장애인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팀원 간 주요 소통채널, 자료 공유방식

1) 온라인

- ① 카카오톡 - 단체 채팅방으로 당일 참여 가능한 활동가 연락
(시각장애인 활동가 중, 시청각중복장애인도 포함 되어 있어 의사소통 시
- 전화보다는 카카오톡을 선호함. 단체 카카오톡 사용 시,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스오버 기능을 사용하여 소통)
- ② 블로그 및 페이스북 포스팅 -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블로그 포스팅에 내용위주의 글을 작성(사진 설명 필수)
-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포스팅을 통해 다른 활동가의 활동도 지켜보고 원하는 포스팅(시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주제를 주기도 함
- ③ 네이버 메모 - 이로움 내부 활동가들의 아이디어 공유 및 빠른 업무 처리(행정)를 위하여 네이버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매주 월요일 각자의 업무를 적어서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메일로 에세이를 작성해 주면 정리하여 포스팅 진행)
- ④ 메일 -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메일로 보내면 전달 사항을 읽을 수 있음(시각장애인 활동가와의 회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 등을 표나 그림이 포함된 문서로 전달할 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배제함)

2) 오프라인

- 팀원이 모두 모이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대표(김민지), 부대표(송아나)로 나뉘어 제작팀, 활동팀 등으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
- 실행 초기, 1:1(시각장애인:비장애인) 파트너를 이루어 활동
- 2주에 한 번 전체회의 필수 진행(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회의를 이해함)
- 시각장애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 서로 해보지 못한 활

동들을 진행하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도출(시각장애인 활동가 지인과
의 만남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훔날리다의 시장방향성 등을 검토)

- 회의나 문서로서의 진행이 아닌 직접 활동하는 방법으로 현실 안에서 대책을 강구
- 시각장애인 특성상 자료는 오프라인으로 받기가 어려움

2. 훔날리다 활동 방법 및 콘텐츠 활용 방법

1) 활동부분

- 시각장애인이 활동가의 경우 각자 픽업스텝이 필요했음
- 복지콜(서울시 시각장애인 이동서비스)를 활용 하여 짐이 많거나 장거리 이용 시 활
용
- 안내견 등의 배변 편의성 등의 문제로 공원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만남을 주선
- 오프라인 자료를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으로 주요사항을 회의 중에 전
달
(각 시각장애인활동가는 점자정보단말기, 보이스오버, 센스리더 등의 시각장애인 보
조 기구를 활용해 메모 등 진행)

2) 제작부분

-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의 자신감이 하락하지 않도록 천천히 지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행
- 가위 잡는 법등의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시력으로 인한 개인편차를 고려해 단체 만
남을 지양하고 개인만남을 유도하여 자신감 상승 유도)
- 시각장애인이 활동 이후 미안해하는 등 감정소모 발생 시 함께 귀가하며 감정을 소
통

3. 의사결정 방식

- 대표, 부대표의 의견조율 후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선택을 권함(프로젝트 시작 시
지나친 민주주의를 통한 의견 결정 지연보다는 약간의 독재에 따른 프로젝트의 방
향성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후 시각장애인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 결정
권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수평적 구조로 변환)

예) 시각장애인들에게 캔들 제작, 판매, 에세이 작성 등의 업무를 알려주고 방법을 제
시하고, 그 중 본인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줌

-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각자의 능력이나 업무태도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동일한 양
의 업무를 분담하였으나, 이후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업무를 분배함(캔들 제작에는
열의를 보이거나 에세이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멤버가 있음 등)
- 업무자체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시간 약속에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판단(보고서나 홍
보물, 디자인, 마케팅 등의 전 과정에 모든 멤버의 의견을 물었으나 시간 내에 답변
을 준 멤버에 한해서만 의사반영을 진행)

지나치게 시간약속을 어기는 멤버의 활동영역 축소로 전체 진행 과정에 피해가 가
지 않도록 변경

4. 대외 홍보 전략

-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내세우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시각장애인"이라는 콘셉트로 시작(캔들과 에세이로 고객 유도 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진행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는 전략)
- 기본 사회적 기업에서 내세우는 장애인기업과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시각장애인에 대한 동정 등의 홍보 철저히 배제)
- 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 복지관 위주의 홍보를 지양하였고 팝업마켓, 카페 입점 등의 직접적인 시장경쟁 진입 방법을 선택하여 비장애인들 사회에 자연스럽게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부담없이 어울리고 즐거워하였으며 참여 횟수를 늘려 비장애인과의 동행을 넘어 시각장애인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 전략적 SNS 활동, 언론 등의 활동의 부족(이는 소수의 비장애인 활동가가 처음 만드는 프로젝트 안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분배의 어려움에서 비롯하여 생긴 문제로 프로젝트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충분히 해결 가능)
- 활동이 진행 될수록 비장애인 활동가의 수를 줄이고 시각장애인 활동가의 수를 늘릴 예정
- 블로그 및 포스팅, 사진촬영 등을 전담해야 하는 업무 부담으로 비장애인 활동가 필요

* 프로젝트 종료 후 대외 홍보 전략

- 플리마켓에 시각장애인 활동가와 직접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알리는 방법 사용
-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뷰 형식의 포스팅 활용
-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통하여 지속적인 프로젝트 연장
- 시각장애인 업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 홍보
- 지속적인 대외 활동 및 시각장애인 이해에 관련 된 포스팅 등으로 흩날리다가 단순히 프로젝트를 넘어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의 커뮤니티가 되는 방안 모색
- 시각장애인 활동가 수를 늘리고 그 구성원을 자연스럽게 비장애인 사회로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이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사회에 편입된 커뮤니티로 성장

6. 수행결과 자체평가

○ 계획서에 작성하였던 목적과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1) 시각장애인과의 낭만공유를 위한 만남 그리고 소통

☞ 현재는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이로움 활동가들을 굉장히 믿고 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서로에게 이해의 벽이 있었고 다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심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셰어링을 통해 바다 여행을 갔을 때, 서로에게 줄 선물과 편지를 하나씩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의 조향사 진출 가능성 제시

☞ 시각장애인이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생각보다 개인 편차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예리한 후각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우리의 기대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표현해내고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0개 이상의 향을 펼쳐 놓아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하나의 향기의 섞여있는 향들을 분석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3) 흘날리다 향수키트 제작 및 에세이제작

☞ 처음 향수키트 제작을 성과물로 내자는 목표를 넘어 향기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각자의 인생의 한 부분을 에세이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감성을 잘 풀어내고 그것을 엮서로 만들 때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진심으로 소통하길 바랐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단지 시각장애인이라서 힘들다 이겨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 그리고 그것이 용기가 되어 지금의 힘이 되는 점을 감성적으로 적어내는 것을 보면서 소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실행 계획의 일치

☞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에세이를 작성하여 그것에 맞는 향기를 선택하는 과정, 또한 직접 제작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홍보하며 마케팅까지 이뤄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팝업마켓을 이용하였고 SNS홍보 및 향기전시회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의 지원서의 방향을 잡는 등의 처음부터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비중을 점점 늘리

면서 그들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훗날리다의 추후 방향은 대부분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처음의 방향성만 제시할 뿐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스스로가 프로젝트에 애착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캔들 제작 및 홍보,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시각장애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실행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대외 홍보

☞ 처음 시도되는 프로젝트인만큼 많은 홍보를 원했으나 방법 등의 문제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극복방법 : 시각장애인 활동가의 시각장애인 단체 홍보, SNS 홍보 등의 방법으로 극복하였고, 지속적인 블로그 포스팅으로 1월 30일 네이버 공익/나눔 메인란에 게재

2) 시각장애인의 보행 문제

☞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속장소에서 만나기 위한 보행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거나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곳 버스로 가야하는 곳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복지콜(서울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복지콜이 모든 시간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접 데리러 가거나 환승을 도와주거나 픽업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활동가가 1명일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 극복방법

스파르타식의 훈련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화장실, 정수기 이용 등 작은 것 하나부터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낯설어 하였지만 자주 방문하는 청년허브 등의 공간에서는 최대한 혼자 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어울릴 때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어울릴 수 있도록 함에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점자스티커를 점자판에 스스로 넣게 도와주고 캔들 제작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

의 평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중에는 훗날리다 시각장애인 활동가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친구들에게 이러한 성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아이디어 실행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 제작비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점자 책자나 점자 포스터, 양각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싶었으나 제작비 문제로 불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가가 직접 점자를 찍어서 일부 점자스티커를 활용하였으나 책자 등은 기술과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점자, 양각 등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책자 제작을 위해 후원 등 협찬을 알아보았지만 불가능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 영상촬영이나 적극적인 홍보 부분이 아쉽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가들이 비장애인들이 결성한 팀에 속하게 되고, 이렇게 비장애인들 커뮤니티에 그들이 구성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의식,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 영상촬영 등을 굉장히 원했으나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 차량지원과 같은 부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애인들과 이동할 때 교통 수단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공간지원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위키서울 실행팀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고, 청년허브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작이 필요한 순간에 이용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해진 공간이 있으면 다들 편한 시간대에 와서 작업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 팀원들의 한줄평가

- 김민지 : 시각장애인의 잠재된 역량을 파악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송아나 : 시각장애인들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친구가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 조원석 : 단기간 참으로 알차고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 이현아 : 감정 공유를 통해 나 자신만 갖고 있던 감정들을 서로 나눌수 있어서 남다른 프로젝트였음

- 정예림 : 에세이 작성으로 잊고 있던 기억을 살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장수연 : 훔날리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로움을, 그들의 이야기를 향기롭게 훔날릴 수 있었어요
- 신선미 : 시각장애인과 의 낭만공유. 소통. 우리모두가 훔날리다여서 가능할수있었던거 같아요.

○ 기타의견

이로움은 시각장애인과 의 활동이 처음이기에 활동에 앞서 준비해야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가와의 자체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은 수정하여 훔날리다의 다음 행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훔날리다가 다음 진행에도 위키의 홍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이 도움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구성원 가운데 정작 장애인은 한 명도 없거나, 장애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장애인들이 홀로 서기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서울을 변화시키는 위키의 아이디어가 그들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점점 더 많아지길 바라며, 그들이 어디에서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훔날리다 성장기

우리 모두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을 사회구성원으로 편입시키고 그들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과 일상 생활을 함께 하거나 장애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실생활로 들어오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움 역시 훔날리다를 통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접하게 되었으나 그들과 함께하며 상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된 사회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개선해야할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가장 성장한 부분입니다. 그저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흘날리다가 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진출방향**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이 주제인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점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고 흘날리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의 진로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맹학교,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직업을 갖는 데 있어 장애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살리되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교육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흘날리다는 이 점을 위해 비장애인 활동가는 시각장애인 활동가에게 보조자, 조력자의 역할만 할 뿐 주된 역할은 시각장애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 활동가가 주 업무를 맡고 프로젝트 진행 및 운영을 주도합니다. 비장애인 활동가는 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정산 등의 행정적인 부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흘날리다의 사회적 파급력**

흘날리다를 진행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회적 파급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우선 비장애인 사이에서 시각장애인과 의 만남, 그리고 스스럼없는 활동의 내용을 보면서 놀라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생활을 존중하였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된 청년허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그 폭을 넓혀가며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우리는 이미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배려를 해주기 시작한 이로움의 주변인들을 비롯하여 활동가의 안내견은 혼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에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사장님들은 안내견을 흔쾌히 받아주기도 하였고 또한 거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끼리만 있었더라면 거부하는 분 앞에서 민망해하며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식의 파급력도 대단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안내견과 그 파트너를 사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재미삼아 사진을 찍는 사람을 향해 옆에 있는 우리가 강하게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시고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사진을 함부로 찍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흘날리다를 통해 주변사람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고, 긍정적

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훔날리다의 성과물제작에 “점자”를 디자인화하여 이를 스티커로 제작 캔들 틴케이스에 디자인처럼 부착하였습니다. 점자를 이렇게 디자인으로 접하지 않은 비장애인들을 이런 점을 매우 좋아하였고 실제 판매에 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훔날리다의 가장 큰 사회적 파급력은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자신감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화장실가기, 정수기 찾기, 환승하기 등을 요구했고 시간이 필요했지만 모두는 웃으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해주었다. 처음에는 화도내고 힘들어 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이런 일을 혼자하게 됨에 따라 그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가에 비해 비장애인 활동가 수가 적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장기화하기 위해 스스로 기본적인 일을 해결하자라는 모토아래 스파르타식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의를 하고 계속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긴 시간 연습을 통해 혼자서 하게 된 서투름 가위질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훔날리다의 가장 큰 사회적 파급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움직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훔날리다의 2차 성장 방안

훔날리다는 시각장애인의 조향사 전문직 진출의 가능성을 본다는 최종목표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팝업마켓 셀러, 마케터, 캔들 제작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처음 생각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그들에게서 모든 부분에서의 성장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후각이 예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상은 하였으나 이 과정의 해결방법은 모호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방법을 찾았고 나아가 발전방향이 되었다.

훔날리다의 다음 방향은 시각장애인의 소이캔들 원데이클래스 강사, 플리마켓 셀러의 가능성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비장애인들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과정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사회에서 충분히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능동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맹학교 복지관, 시민참여부스, 다양한 강의 등의 형태로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앞에 시각장애인들이 나서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캔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성공유, 에세이작업, 캔들의 향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전 과정을 첨가 시켜 더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은 시각장애인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회복 및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그

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 **흘날리다를 하며 변화되길 바라는 사회적 부분**

흘날리다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과 프로젝트 외에도 만남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움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면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활동한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고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사회에 상처를 받고 맘을 닫아버린 시각장애인들도 있었고,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환경 등에 의해 시력이 더 나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시각장애를 이겨내고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지내는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불편할 뿐이지 모든 상황은 비장애인들과 같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변화하길 바라는 사회적 방향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적은 것으로 그들이 바라는 방향을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위키서울을 비롯하여 사회의 작은 변화를 위한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주체가 되기 보다는 비장애인들끼리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결국 좋은 생각을 가진 좋은 일을 한 비장애인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모른 채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정산 과정에서 표는 없을 수 없으나 시각장애인에게 이 과정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만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천천히 설명해주고 도와준다면 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해주는 보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소위 귀족 문화 정도의 값비싼 기기들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점자정보단 말기는 600만원에 육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구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나 음성인식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